

## 윤구병 <함과 됨>

제8강 - 의사소통과 문자  
(1교시)

### ◆ 도시사회에서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

농경민과 유목민들의 생활과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 의식, 관습 이런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해안도시사회 중에서도 전제군주가 다스리는 행정도시가 아니라 이오니아 식민지라는 지중해 해안도시에서 성립한 도시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이 지혜의 함수가 되고, 유목사회에서는 공간적인 경험의 확장이 지혜의 함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경험의 축적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사회가 있고, 공간적인 경험의 확장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사회가 있는데, 최초의 서양식 철학자인 탈레스가 태어나고 활동했다는 이오니아 지방의 식민지인 밀레토스, 이런 사회에서는 실제로 두뇌의 회전이 지혜의 함수가 되는 사회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뱃길을 통해 이곳저곳 많은 곳을 여행하고, 불평등 거래를 평등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 언어를 익히고, 말하는 최초의 코스모폴리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인들이죠.

지중해 연안 뱃길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거래를 해야 하니까, 수시로 바다에 나가 장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힘이 세고, 장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힘이 약할 때는 수시로 서로 노략질을 하는 해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오딧세이도 해적선에 붙들려 가서 오랫동안 고생한 기록도 나오고 있죠. 때로는 떼강도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꾼으로 거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대체로 도둑놈 기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혹시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상처 되는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하~

어쨌든 여기에서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밀레토스 예만 들더라도, 이 조그만 해안도시에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리디아인, 페니키아인, 인도인, 이집트인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 신념, 가치관을 고집하게 되면 서로 어울려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연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좁은 도시 공간 안에는 생산지가 없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도 끌어들어야 하고, 그 밖의 재화가 될 만한 물건들도 끌어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부 결속력이 생겨야 하고, 그것이 생기기 위해선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위계질서가 성립하기도 하고, 하이라키(hierarchy)를 설립시키는데 두 가지 계기가 작용할 수 있죠.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설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죠.

그런데 초기 형태의 폭력적인 국가 기구와 이념적인 국가 기구가 원초적인 형태의 이 도시에서 나타나고, 어차피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식민주의자의 습성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가령 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데 김포에서 쌀을 가져다 먹는다, 근데 김포에 흉년이 들어서 생산에 결함이 일어난다, 근데 김포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근데 여주도 같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공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곳저곳 멀리까지 생산지를 확보해서 그것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결함이 생산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생산지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굶어죽거나 요양을 떠나야 합니다. 왜냐면 일 년 농사지으면 일 년 동안 살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으면서 생산지에서 결함이 일어나게 돼도, 그것을 고분고분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건 문제인데 설득을 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어서 폭력적인 국가 기구가 작동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 잘하는 외교관이나 교사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폭력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군대나 경찰 같은 것들도 그 내부에서 같이 길러내야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사람들이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존방식이 그러하니까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국식민화를 하고 그것이 한걸음 더 나아가면 해외식민지를 두게 되는데 이오니아 지방 식민지로서 지중해 연안의 식민지 곳곳이 개척이 됐다는 것은 미케네문명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아테네 제국주의자들이 지중해 지방의 식민지들을 개척해 놓은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누가 속셈이 더 빠르냐에 따라 권력의 서열이 정해지고 위계질서에서 누가 위, 아래로 놓이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농경마을이 한 사람의 우주니까 말로 소통이 가능했고, 유목민들도 소단위로 천막을 치면서 흩어져 다녔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수단이 말이었습시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광범한 지역으로 장삿길이 열리고 삶의 터가 국제화되면서 말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쇠기문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대책 없이, 돼지가 몇 마리, 보리 몇 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엽전입니다.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신용사회가 도래되는 겁니다. 시골사회에서 말과 하는 짓이 다르면 24시간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목사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시인들의 삶이란 건 서로 은폐되어 있고, 거리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장사를 하게 되면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거나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더라도 점점 분리가 되니까 말로는 그쪽에서 ‘소 한 마리 보내면 여기서 곡식 세 말 보낼게’ 하다가도 그 쪽에서 곡식을 구하기 힘들어서 안 보내면 그쪽에서는 소 한 마리 보냈는데, 여기서는 ‘내가 언제 세말 보낸다고 그랬어? 여기 흉년이라 한말 보낸다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남겨 서로 반쪽으로 쪼개 갖더라도 말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서로 문자로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렇게 공동체 단위가 넓어짐에 따라 문자의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말이 생활공간이 괴리가 되니까 서로 믿지 못해서 생활공간이 훨씬 더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글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온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불편해지죠? (대답 없음) 아니에요? 도시에 살면서 어찌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당연히 불편해져야하는데. (일동 웃음)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적인 삶의 형태를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온갖 세계의 물류가 도시로 전부 모이게 됩니다. 단일 공동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농

경사회에서 생산되는 것, 재산가치가 있는 것 전부 유기물이고, 유목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사회가 되면서 온갖 물류가 도시를 거쳐 이동을 하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가운데 후세에 사치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인 향료나, 비단은 멀리 중국에서부터 왔습니다. 대진국(로마) 사람들이 비단을 좋아하는데, 대진국에 가는 비단길을 가로막는 여러 부족들 때문에 길이 막혀 대진국으로 가면 굉장히 비싼 값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비단길을 여느라 중국에서 군대를 내보내기도 하면서 결국은 대로마 제국과 중국이 한 쪽에선 동쪽으로 길을 열어가고 한 쪽에선 서쪽으로 길을 열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단길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왜 유기물은 장삿길을 통해서 오가는데 지극히 한정되고, 나머지 무기물들이나 사치품들이 오가게 됐느냐. 왜 그랬을 거 같아요? 유기물은 도중에 썩어버리기도 해서 수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릴 필요도 없고, 가격탄력성이 없어서 한계효용의 법칙이라는 기묘한 법칙이 작용이 돼서 조금만 한계를 넘쳐버려도 뚱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향이 엄청나게 강한 측면도 있어서 유기물들은 거래수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공급받으면 되고, 때돈을 버는 것은 사치품이나 금, 은, 보석, 향신료나 비단 같은 것인데 이것이 재미있는 게 짐이 가벼워요. 고가의 물건을 싣고 갈수 있으니까 마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유럽과 교역을 하는데 지중해 연안을 거치는데 홀수선이 잠기도록 과일이나 곡식 같은 것들을 잔뜩 실어, 올라갈 때는 홀수선이 가득하지만 내려올 때는 기계하나 싣고 내려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큰 육로를 통해서건, 해로를 통해서건, 장사꾼들은 큰 위험부담을 안아야 했는데 그런 경우엔 짐이 가벼워야 빨리 달아날 수 있고, 싸워도 할가분하게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죠. 이런 이야기 웃자고 한 이야기죠? (일동 웃음)

## 윤구병 <합과 됨>

제8강 - 의사소통과 문자  
(2교시)

### ◆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발전한 문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지리 역사상의 탐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언어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거래를 해야 하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언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문화 융합이 이루어지죠. 가치관이나 종교형태가 저마다 다르고 기록하는 방식들도 이집트사람이 기록하는 방식과 중국 사람이 기록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 지역의 특수한 언어를 아우를 수 있는 일반 소통구조, 사람들 의식이 어떻게 해서 서로 공통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반 문법에 대한 관심들도 생겨나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숫자를 표기했다고 했죠? (대답 없음) 여러분들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표기했는지는 알죠? 시계 바늘을 보면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표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문자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 라는 잡지를 본적이 있습니까? 그 잡지를 보면 1976년을 글자로 어떻게 표기했습니까? 그냥 우리 한글로 천구백칠십육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이 6을 써놓고 월을 쓸 때 유월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육월이라고 읽고, 3살을 써놓고 세 살이라고 읽지 않고 삼살이라고 읽는다고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써 있는 것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읽지 않고 일일, 이일, 삼일, 이런 식으로 읽는다고 개탄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개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없음) 사실 아라비안 숫자로 써놓고 중국식으로 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이 중국 한자를 보고 우리식으로 한 것이죠. 아라비안 사람 탓 아니죠?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를 아라비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읽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읽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 의심스러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 한글 천구백칠십육년으로 써야죠. 근데 그걸 왜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 않았냐고 야단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야단치겠어요? 습관이 안 돼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이게 시각문화에 젖은 사람들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한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청각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써놓고 그것을 천구백칠십육년이라고 읽으라고 한다면 황당해 하겠죠. 오히려 ‘뿌리 깊은 나무’ 식으로 써야 읽을 때 바로 우리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각적인 정보가 도시사회에서 지배적인 정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시각화된 형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추기는 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각적인 정보를 가장 신뢰하게 되었다는, 유기체와 함께 생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청각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유기체가 죽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무리 멀리 헤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각적인 매개체가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티마이오스 편인가? 대화편을 보면, 하도 오래 전에 읽어서 기억 속에서 흔들리거나 흘러가거나 사라지거나 해서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이집트를 방문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네오이라고 부릅니다. 네오이라는 것이 뭐냐면 꽃내기들, 젊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것들이라는 뜻도 있지요. 문화의 지칭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것이 표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과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의 삶이 한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할까요? 아마 그걸 두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초기에 그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생명의 시간, 모든 생명체의 몸을 관통하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는 의식도 관통하겠죠. 그런 생명의 시간 가운데서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농경민의 의식 속에서는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달과 해의 순환이 자연의 시간을 규정짓는 것들이어서 자연의 시간은 순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해가 떴다 지면 하루가 지나고, 날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올랐다가 서쪽으로 지고, 달이 자꾸 기우는 것이 순환이 되서 한 달이 되고, 이십사절기를 지내서 한 해가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시간의 질서에 맞춰서 사람이 살아갔기 때문에 자연의 시간은 농경민에게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목 생활을 시작하는 집단이 나타나게 되면서 인간의 시간은 자연의 시간에서부터 조금씩 분리해나가게 된다. 목초지를 찾아다니는 동안 항구적인 계절을 유지해야 기르는 가축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도려내서 그것을 항구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유목민의 경우엔 인간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과 더불어 병행돼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완전히 독립된 수로서 자리 잡지는 못했다. 그런데 해안도시 사회에 들어가면서 자연의 시간은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고 인간의 시간이 독립변수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알고 있는 시간, 공간, 유클리드기하학 공간, 이런 게 전부 인위적인 공간입니다. 자연공간이 아닙니다. 아이슈타인의 통일장의 이론에 나오는 우주공간도 자연적인 공간이 아닌 인위적인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많은 학자들이 떠들어대서 이런 공간들이 실재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운동을 규제하는 정지하는 것은 정지해 있고 마찰이 없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수평 운동을 한다든지 중력에 의해서 낙하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 전부 실재하는 운동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귀에 듣기에 낯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시공간 개념 속에서 파생된 것 가운데 가장 여러 사람들의 귀에 그럴 듯하게 들리는 가상작업, 가설이 탄탄해서 그것이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하는 시간관이고 공간관일 뿐이지, 실제 공간과 시간이 그렇다고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더 살펴보기로 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 말이 맞다면, 서양의 과학체계를 뒷받침하는 모든 가정들이 전부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로서도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